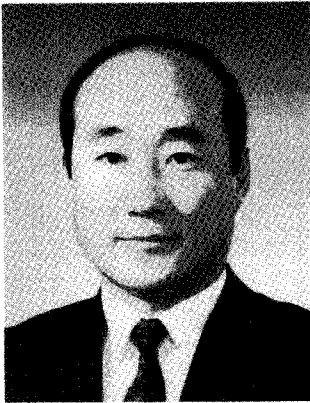


고객 만족 실현

21세기를 준비하는 이천전기의 도전정신은 최고를 향한 도약



유희동 대표이사

1945.9 서울출생
1968.2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68~ 제일모직 입사
1972~'94 삼성전자, 삼성석유화학,
삼성전관 근무
1995~ 삼성전자 부사장
1997.3 이천전기 대표이사 사장

「2000년대 국내 최고의 중전기업체로 부상한다」

국내 최초의 중전기업체인 利川電機(대표이사 柳熙東)는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수배전제어반, 펌프, 수처리·환경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종합중전기업체로서 '97년 3월 삼성그룹의 지분 인수를 계기로 최고의 품질로 국내 정상에 오르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의 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임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利川電機는 기존제품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우위 제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삼성그룹에서 부분적으로 참여중인 중전 관련사업을 결집시켜 사업을 강화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기술제휴사인 東芝와의 폭넓은 기술협력을 통하여 기술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의 M/S확대는 물론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삼성 중전기부문 강화로 그룹 SYNERGY 효과 기대

삼성그룹은 각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사업중에 있는 중전산전사업분야에 이천전기의 사업 분야를 추가 보완하여 종합 중전업체로서의 면모를 혁신하고, 그룹 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전자분야의 세계 최정

상인 모기업 삼성電子와 利川電機의 조화를 통하여 고객위주의 제품혁신으로 초일류 중전기업체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利川電機의 행보가 세간에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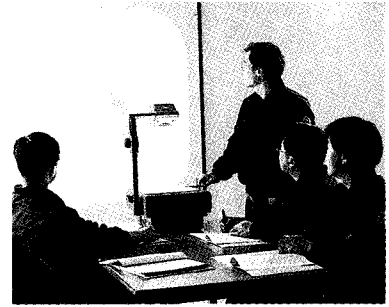
利川電機는 이를 위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수배전제어반, 펌프, 시스템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초고압변압기, 발전기사업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고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수배전반사업 진출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GIS 및 수배전반용 부품사업에도 착수하고 있으며, 특히, UPS, Inverter, PLC, DCS 등 전력전자 사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을 특화하고 차별화하여 이천전기 고유의 사업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독자적인 고유모델 개발에 중점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 SPEED한 경영으로 경영혁신 운동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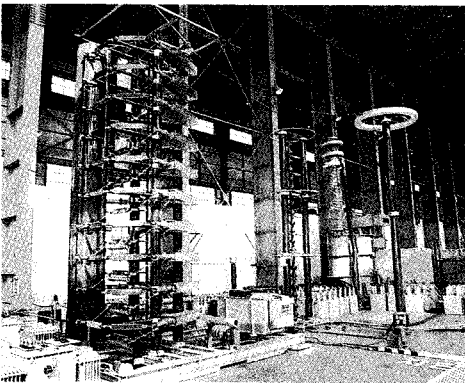
利川電機는 중전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부문이 Speed-up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생산, 개발, 품질, A/S, 영업 등 회사의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A/S 부문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고객의 Call을 24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의 요구에 미리 대처하는 B/S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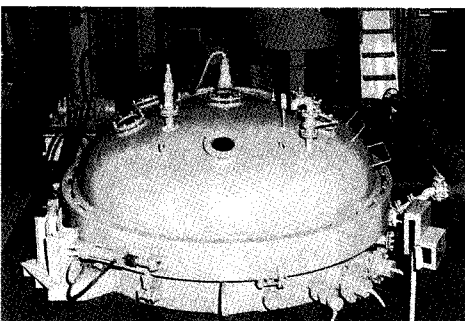


▲ 연구 세미나

■ 공장증설과 설비보강, 의식개혁 운동으로 고객만족 실현



▲ 충격전원 발생장치



▲ 진공가압합침장치

국내 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96년부터 약 300억에 달하는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단행하여 대형 회전기공장의 신축, 중소형 전동기공장 증축, 통합 사무동과 식당동 신축을

비롯하여 자동화설비, CNC M/C 등의 설비 현대화를 단행하였고 삼성의 본격적인 참여로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利川電機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바로 다른 사원 의식개혁 운동을 손꼽을 수 있다. 의식개혁 운동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타성에 젖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자발적이고 스스로 행동하는 창의성있는 근무자세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利川電機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것이다.

利川電機가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의식개혁 운동은 현장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전임직원이 동참, 품질 및 생산성향상, 근로의욕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利川電機의 모습을 종업원들의 넘치는 활력과 생동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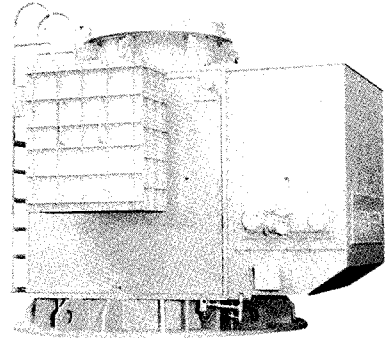


▲ Software 개발

■ 주요 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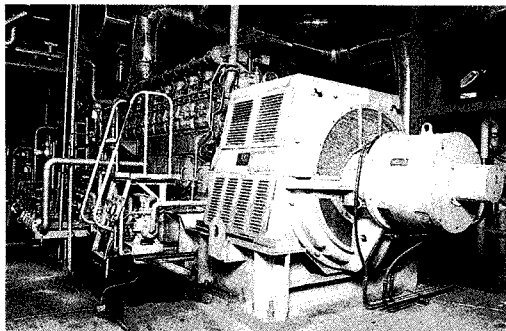
교류전동기(AC MOTORS)

利川電機는 산업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용전동기, 발전소용전동기, 수중전동기, 위험지역에 사용하는 방폭형전동기 등을 제작, 공급함으로써 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천은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초고압전동기(11,000V)를 제작한 이래 5,100kW의 대용량고속기 납품(포항제철), 세계 최대의 담수설비용 전동기(사우디, 13.8kV, 3,050kW)를 납품하여 절연의 신뢰성과 저소음 및 고효율화를 실현하였으며, 고압수중전동기 제조기술 부문에서는 중전기업계 최초로 국산 신기술 "KT"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 초고압 전동기/13.8kV-16p-3050kW (사우디아라비아)

발전기(GENERATORS)



▲ 병렬운전 및 열병합 Dual Fuel 발전설비/ 1600kW-10p-6.6k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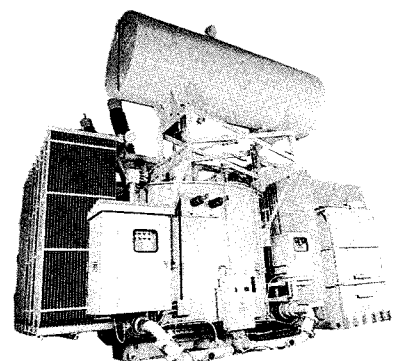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의 실현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 고품질의 안정된 전력에너지가 요구되고 있다.

利川電機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발전기를 생산 공급해 오면서 폭넓은 경험과 실적, 그리고 높은 기술을 축적해 왔다. 빌딩, 호텔, 병원 등의 비상전원설비를 비롯해 산업용 비상발전기,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비상전원설비, 선박용발전기(西芝電機와 기술제휴), 차량용발전기, 고주파발전기 등 발전제어 시스템과 일괄하여 공급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있다.

변압기(TRANSFOR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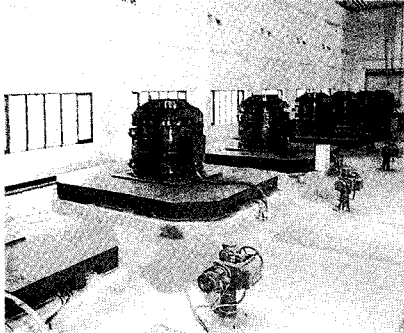
利川電機에서 생산되는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빌딩, 공장 등으로 보내는 송전용에서부터, 공장의 수배전용 변압기, 빌딩용으로 각광 받고 있는 몰드변압기, 그리고 각종 로(爐)에 이용되는 특수로용 변압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77년 154kV급 변압기 생산을 시작으로, '79년 국내 최초로 로용 수냉식 변압기의 개발 및 345kV급 변압기를 개발하여 업계의 수요에 대응해 왔고, 현재는 765kV 변압기, SF₆ Gas변압기, 도시형 가스절연변압기, 난연성 변압기 등 차세대 환경조화형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대비하고 있다.



▲ 345kV 변압기

펌프(PUM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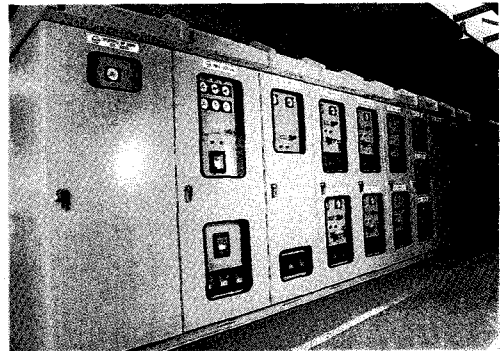
▲ 입축 축류펌프/구경 2200mm/(개봉 배수장)

利川電機는 펌프제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50여년 역사를 이끌어 왔으며, 각종 해수펌프, 상하수도용 펌프, 하수처리용 펌프, 관개수로용 펌프, 선박용 펌프에서부터 발전설비 등 대용량 펌프에 이르는 다양한 용도의 펌프를 국산화해 오면서 삼천포화력에 순환수펌프, 복수펌프 등을 공급한 것을 비롯해 일도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서울시청 등에 납품함으로써 수많은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수배전제어반

산업시설의 전력시스템 중 수배전제어반은 완벽한 감시, 제어 및 신뢰성이 요구되며 제품의 다양화와 함께 급격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利川電機는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발전소, 변전소, 플랜트, 공장, 빌딩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MCSG, Load Center, MCC, 기동반, 계장제어반, 자동역률보상장치, Harmonic Filter는 물론 몰드콘덴서, 몰드변압기 등 Switchgear의 핵심기기를 생산하여 그 성능을 널리 인증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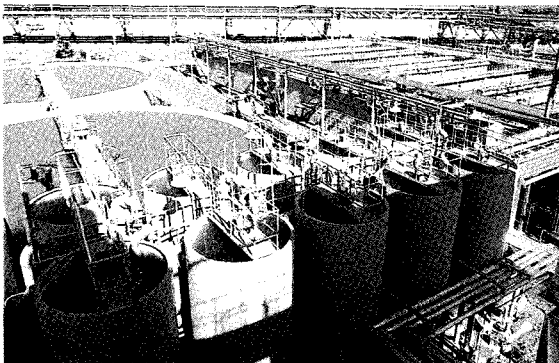


▲ 수배전반/3.3kV-1200A-20KA/삼성전기

환경·계장제어 시스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환경시스템의 적용분야 또한 광범위해지고 기술도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利川電機는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제품생산기술과 고도의 시스템기술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설비를 강원산업 및 익산하수처리장에 공급하는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를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시스템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의 규모 및 운영방식에 맞추어 중앙집중과 분산제어를 통한 최적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감, 인력절감, 관리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계장제어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환경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인류의 당면과제인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폐수처리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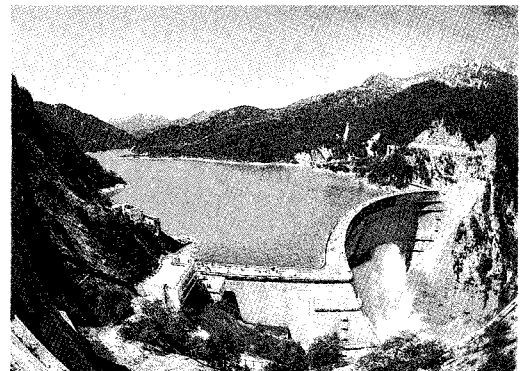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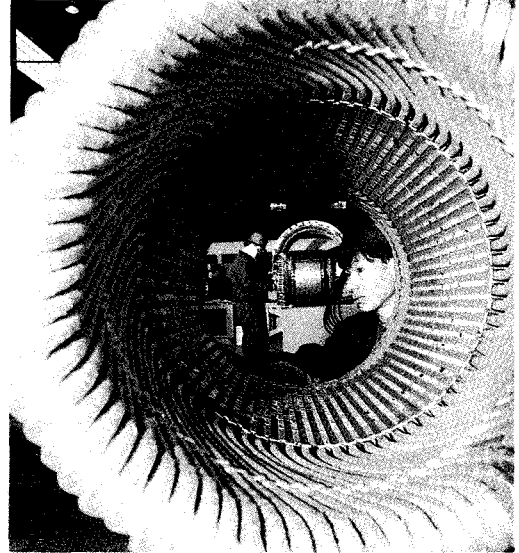
■ 고객·주주·사원이 만족하는 경영추구
인재육성이 기업성장의 우선조건

“중전업계의 선두주자답게 이천가족 모두는 애사심이 강해 상호협조체제가 원활하다는 것이 사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에 다가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다 좋은 물건을 빠르고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고객만족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임 유사장은 이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 세월을 삼성에 몸담아온 정통 삼성맨으로 오랫동안 전자사업을 추진해 온 까닭에 중전기 사업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모든 산업의 INFRA 설비이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매력이 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유사장의 야심찬 모습에서 利川電機의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1938년에 설립되어 묵묵히 우리나라 중전기의 맥을 이어온 利川電機는 삼성그룹의 지분 인수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2창업의 정신으로 정상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모기업인 삼성전자와 利川電機가 조화를 이뤄 총체적인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중전기업계의 일류기업으로 제2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利川電機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이천전기의 연혁 ●

1938. 10	일본 (株)東芝 인천공장 창설
1956. 2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민영화
1977. 10	154kV, 345kV급 변압기공장 준공
1978. 4	일본 (株)東芝와 합작투자
1984. 3	원자력발전소용 펌프 제작
1990. 7	공장품질관리 1등급 획득
1994. 10	ISO 9001 인증 취득
1996. 1	대형회전기 공장, 통합사무동 완공
1997. 3	삼성그룹의 이천전기 지분 완전인수
1997. 9	이천전기공업(주)에서 이천전기(주)로 상호 및 CI 변경